

비창 6장 연역 논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한국 속담

▣ 들어가는 말: 명제의 구분과 연역논증의 형식

(1) 명제의 구분: 단순명제와 복합명제

정언(단순)명제: 주어+ 계사+ 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주어에 대해서 술어가 이다 또는 아니다로 주장하는 명제

조건(복합)명제: 두 정언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 명제

①가언명제: 두 정언 명제가 ~라면(if/⊃)로 결합되어 있는 명제/이유와 귀결 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명제/전건과 후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

②선언명제: 두 정언 명제가 ~이거나(or/∨)로 결합되어 있는 명제(선언지: 선택을 필요로 하는 술어)

(2) 정언명제의 양과 질

모든 S는 P이다-전칭긍정명제-A명제

모든 S는 P아니다-전칭부정명제-E명제

어떤 S는 P이다-특칭긍정명제-I명제

어떤 S는 P아니다-특칭부정명제-O명제

(3) 연역논증 형식: 명제의 논리적 형식과 개념의 논리적 형식-추론 단위에 따라 명제 논리 형식과 개념 논리 형식 발생

<보기>

일한 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일한 만큼 대접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p이면, q이다. p이다. ∴ q이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고귀하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고귀하다. (모든 S는 M이다. 모든 M은 P이다. ∴ 모든 S는 P이다.)

1) 중요한 명제 논리 형식

① (전건) 긍정법(식) (Modus Ponens)

<형식>

전제 1: 만일 p이면, q이다. (p⊃q)

전제 2: p이다. (p)

결론: q이다. (q)

<보기>

만약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나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후건 긍정의 오류>

☞ 긍정식에서 둘째 전제가 첫째 전제의 전건을 긍정하지 않고 후건을 긍정하는 것.

<형식>

전제 1: 만일 p이면, q이다. ( $p \supset q$ )

전제 2: q이다. (q)

결론: p이다. (p)

<보기>

만약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나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 ② (후건) 부정법(식) (Modus Tollens)

<형식>

전제 1: 만일 p이면, q이다. ( $p \supset q$ )

전제 2: q아니다. ( $\sim q$ )

결론: p아니다. ( $\sim p$ )

<보기>

만약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건 부정의 오류>

부정법에서 둘째 전제가 첫째 전제의 후건을 부정하지 않고 전건을 부정하는 것.

전제 1: 만일 p이면, q이다. ( $p \supset q$ )

전제 2: p아니다. ( $\sim p$ )

결론: q아니다. ( $\sim q$ )

<보기>

만약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지 않았다.

### [퀴즈 문제]

만약 오늘 아들이 마당의 잔디를 깎으면 나[어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은 잔디를 깎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잔디를 깎지 않아서 용돈을 주지 않았다. [전건부정의 오류?] 또는 어머니는 용돈을 먼저 주고는 그러니 마당을 깎아라는 결론이다. [후건 긍정의 오류?]

## ③ 가언 삼단논법(간접추리법 Hypothetical Syllogism) cf. 반/혼합VS.전/순수가언삼단논법

<형식>

전제 1: 만일 p이면, q이다. ( $p \supset q$ )

전제 2: 만일 q이면 r이다. ( $q \supset r$ )

결론: 만일 p이면 r이다. ( $p \supset r$ )

<보기>

새 길이 건설되면,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 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새 길이 건설되면, 그 지역 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 지각을 하면, 이 과목에 낙제점을 받을 것이다. 이 과목에 낙제를 하면, 이번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고민만 해 왔던 귀농을 드디어 결행할 것이다. 내가 귀농을 하면, 나는 ‘급한 삶’(fast life)에서 ‘느린 삶’(slow life)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될 것이다. 느린 삶이라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각을 하면, 나는 장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선언(選言) 삼단논법(Disjunctive Syllogism): 부정적 긍정식 vs. 긍정적 부정식

<형식: 부정적 긍정식>

전제 1: p이거나 q이다. ( $p \vee q$ )

전제 2: p 아니다. ( $\sim p$ )

결론: q이다. (q)

☞선언 명제에 대한 두 가지 해석과 그 공통성

⇒포괄적 해석→둘 중 어느 한 쪽이거나 둘 다도 가능함/선언지의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되고 둘 다 참이어도 된다. ex)대졸 신입사원 지원 자격은 법학 또는 경영학과 출신.

⇒배타적 해석→둘 중 어느 한 쪽이어야 하고 둘 다는 불가능함/선언지의 어느 하나만 참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참이어서는 안 된다. 즉 둘 다 참일 수 없다. ex)뷔페 후식 메뉴는 커피 또는 홍차.

⇒공통성→둘 중 어느 한 쪽이 참이어야 한다.

<보기>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려 할 수도 있고,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을 바랄 수도 있다. 그런데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즉 도덕성 향상으로는 아니다]. 따라서 먼저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두 가지 해석 무관 형식 적용→둘 중 어느 한 쪽은 참이라는 조건 충족]

<선언지 긍정의 오류> cf. 선언불완전의 오류

☞선언삼단논법에서 선언명제의 첫 선언지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것.

<형식: 긍정적 부정식>

전제 1: p이거나 q이다. ( $p \vee q$ )

전제 2: p이다. (p)

결론: q아니다. ( $\sim q$ )

<보기>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려 할 수도 있고,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을 바랄 수도 있다. 그런데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많이 시도되었다.[즉 도덕성 향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쪽을 택하는 것을 권고할 수 없다. [포괄적 해석 가능 경우에는 형식 적용 불허→둘 다 참이라는 조건에서]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려 할 수도 있고,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을 바

랄 수도 있다. 그런데 도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많이 시도되었다.[즉 도덕성 향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쪽을 택하는 것을 권고할 수 없다. [배타적 해석 가능 경우에만 형식 적용 가능→둘 다 참이 아니고 어느 한 쪽만 참이라는 조건에서]

<보기>

저 친구는 학생이거나 직장인 같아 보였어.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저 친구는 신신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래. 그러니까 직장인은 분명 아니야.

⇒포괄적 해석(직장에 다니는 학생)→결론은 오류

⇒배타적 해석(학생 아니면 직장)→결론은 정당

⇒선언지 긍정의 삼단논법(긍정적 부정식)은 선언지를 배타적으로 구성하면 적용 가능→선언불완전의 오류

ex) 저 친구는 중학생일까 고등학생일까? 저 친구 입은 옷이 신라중학교 교복이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아니구나.

⑤ 딜레마(di/2; lemma/뿔, 가정, 양도논법/삼도·사도논법); 가언적-선언적 삼단논법

☞ 두 개의 가언 명제와 하나의 선언 명제를 전제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삼단논법(간접 추리)

☞ 양도 논법의 논리 형식으로는 4종→단순구성, 단순파괴, 복합구성, 복합파괴식(법)

☞ 단순과 복합은 결론 명제의 형태를 지시, 구성과 파괴는 각각 선언 명제의 형태를 지시

☞ 결론이 정언 명제이면 단순, 선언 명제이면 복합식이고, 선언 명제가 선언적으로 긍정하는 명제(전건긍정식 사용)이면 구성, 부정하는 명제(후건부정식 사용)이면 파괴식.

1) 단순구성식

☞ 가언명제는 그 두 후건이 동일하고 선언명제는 그 두 전건을 긍정하여 결론명제는 그 후건을 정언명제로 하는 형식.

☞ 전건 긍정식 사용

<형식>

전제1: p이면 q이고 r이면 q이다.  $(p \supset q) \cdot (r \supset q)$

전제2: p이거나 r이다.  $(q \vee r)$

결론: q이다. (q)

<보기>

만약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내가 지영이와 결혼을 하면, 나의 부모는 나와서 인연을 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평생 독신을 고수한다면, 3대 독자인 나의 부모는 역시 나와서 인연을 끊을 것이다. 나는 지영이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부모는 좌우간 나와서 인연을 끊을 것임에 틀림없다.

새로 확립하려는 방위체계가 남북의 전력 균형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만약 새 방위체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것도 비효율적이다. 새 방위체계가 전력 균형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거나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쨌든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용도>

상대가 선택할 것이 한 개의 부정 결론밖에 없음을 보여주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

## 2) 단순파괴식

가언명제는 그 두 전건이 동일하고 선언명제는 그 두 후건을 부정하여 결론명제는 그 전건의 부정을 정언명제로 하는 형식.

후건 부정식 사용

<형식>

전제1: p이면 q이고 p이면 r이다. [p이면 q이거나 r이다].  $(p \supset q) \cdot (p \supset r)$

전제2: q아니거나 r아니다.[q아니고 r아니다].  $\sim q \vee \sim r(\sim q \cdot \sim r)$

결론: p아니다.  $(\sim p)$

<보기>

그대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프로포즈를 할 것이다. 또 그대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직장 포기를 당연히 할 것이다. 사랑을 프로포즈하지 않거나[않고] 직장포기하지 않거나[않는다] 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정한 학자라면 이론적 오류를 시인할 것이다. 또 만약 내가 진정한 학자라면 비판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나는 이론적 오류를 시인도 비판적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다. 결국 나는 진정한 학자가 아닌 셈이다.

<용도>

상대가 선택할 것이 하나의 부정 결론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

## 3) 복합구성식

가언명제는 그 두 전건과 후건이 모두 다르고 선언명제는 그 두 전건을 긍정하여 결론명제는 그 두 후건을 선언적으로 긍정하는 형식.

전건 긍정식 사용

<형식>

전제1: p이면 q이고 r이면 s이다.  $(p \supset q) \cdot (r \supset s)$

전제2: p이거나 r이다.  $(p \vee r)$

결론: q이거나 s이다.  $(q \vee s)$

<보기>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국제적인 무역 제재를 당할 것이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계속 시달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개발하지 않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무역 제재를 당하든지 북한의 핵 위협에 계속 시달리든지 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 그들은 그리움으로 마음의 병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헤어지지 않으면 그들 앞에 놓인 엄청난 시련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두 길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의 병을 얻든지 목숨이 위태롭든지 할 것이다.

<용도>

상대가 선택할 것이 두 개의 긍정 결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

#### 4) 복합과괴식

가언명제는 그 두 전건과 후건이 모두 다르고 선언명제는 그 두 후건을 부정하여 결론명제는 그 두 전건을 선언적으로 부정하는 형식.

후건 부정식 사용

<형식>

전제1: p이면 q이고 r이면 s이다.  $(p \supset q) \cdot (r \supset s)$

전제2: q아니거나 s아니다.  $(\sim q \vee \sim s)$

결론: p아니거나 r아니다.  $(\sim p \vee \sim r)$

<보기>

만약 종길이가 정직하다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것이요 현명하다면 자신의 과오를 깨달을 것이다. 종길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든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종길이는 정직하지 않든가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진정한 역사가라면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파악한다. 진정한 철학자라면 시대의 과제를 인식한다. 그는 역사적 현실도 시대의 과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아마 그는 진정한 역사가가 아니거나 진정한 철학자는 아닐 것이다.

<용도>

상대가 선택할 것이 두 개의 부정 결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

⑥ 좋은 양도논법의 규칙

- 규칙1(내용면): 가언 명제의 전건과 후건은 내용상 필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 거짓 딜레마의 오류(가언 명제 거짓의 오류)
  - 뿔 잡는 법: 가언 명제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필연적 연관이 없어 가언 전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도논법의 결론을 퇴치하는 법
  - 역 딜레마 법: 원 딜레마와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되 가언 전체를 변용시켜 원 결론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구성함으로써 양도논법의 결론을 퇴치하는 법 ⇨ 규칙1의 변형
- 규칙2(내용면): 선언 명제의 선언지는 모든 경우를 총망라해야 하며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 거짓 딜레마의 오류(선언 명제 거짓의 오류)
  - 뿔 사이로 피하는 법: 선언 명제의 선언지가 완벽하지 않거나 제3의 선언지를 제시하거나 하여 선언 전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도논법의 결론을 퇴치하는 법
- 규칙3(형식면): 선언 명제는 가언 명제의 전건을 긍정하거나 후건을 부정해야 한다. ⇒ 후건 긍정의 오류, 전건 부정의 오류

⑦ 좋은 양도논법의 판별(비판)

- ⇨ 형식면에서 4종의 양도논법의 논리적 형식 준수 여부 검토.
- ⇨ 내용면에서 규칙 1과 2의 준수 여부를 검토(거짓 딜레마의 오류 유무 점검).
- ⇨ 거짓 딜레마의 오류: 양도논법에서 가언 명제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없거나 선언 명제의 선언지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 하는데도 결론을 도출하는 것.

-뿔 잡는 법(taking the dilemma by the horns)

<보기>

만일 지리산 일대에 갈수기용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낙동강 물을 2급수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또 만일 지리산 일대에 갈수기용 댐을 건설하면, 지리산 일대의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리산 일대에 갈수기용 댐을 건설하거나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물을 2급수로 만들 수 없거나 지리산 일대의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식 타당, 복합구성식: 첫 가언 전체의 신뢰성 비판 → 뿔을 잡고 꺾어버림)

-뿔 사이로 피하는 법(escaping between the horns)

<보기>

공격을 하면 적의 막강한 화력에 의해 전멸할 것이고, 후퇴를 하면 적의 막강한 기동력에 의해 퇴로를 차단당해 전멸할 것이다. 공격 아니면, 후퇴밖에 없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형식 타당, 단순구성식: 선언 명제의 거짓됨 판별 → 뿔과 뿔 사이로 빠져나감)

-역 딜레마 법(rebutting the dilemma by means of a counterdilemma)

<보기>

네가 만일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세상 사람의 미움을 살 것이다. 또 네가 만약 거짓말을 해서 부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신의 미움을 살 것이다. 너는 정직하게 정치를 하든지 부정직하게 정치를 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세인의 미움을 사든지 신의 미움을 살 것이다[그러니 정치할 생각을 말거라].(형식 타당, 원딜레마 복합구성식)

제가 만일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신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제가 만일 거짓말을 해서 부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정치를 하든지 부정직하게 정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의 사랑을 받든지 세인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그러니 정치를 하십시오].(형식 타당, 역딜레마 복합구성식: 두 가인 명제의 후건의 잘못됨 지적)

<단순 예제1>

만일 철수가 영희한테 장미꽃을 선물한다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한테 핸드폰을 선물한다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철수는 장미꽃이나 핸드폰을 선물한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단순구성식: 뿔로 잡는 법 적용)

<단순 예제2>

비창 수강생들이 비창 학습을 좋아한다면 그들에게 자극이 필요 없다. 그들이 비창 학습을 싫어한다면 그 때문에 자극은 어떤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비창 수강생들은 비창 학습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러므로 자극은 필요 없거나 효과가 없다.(복합구성식: 뿔 사이로 피하는 법 적용)

<단순 예제3>

만약 1박 2일에 강호동이가 오면 이승기도 온다. 이수근이가 오면 엄태웅도 온다. 이승기도 오고 엄태웅도 온다고 한다. 따라서 강호동이나 이수근이도 올 것이다. (형식 위반: 후건 긍정의 오류)

<종합 예제1>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것도 탐구할 수 없고 그가 알지 못하는 것도 탐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탐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가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것을 탐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탐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종합 예제2>

어떤 사물이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거나 있지 않은 곳에서 운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운동할 수 없다[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므로]. 또 그것은 자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 운동할 수 없다[자신이 그 곳에 없으므로]. 따라서 어떤 것도 운동하지 않는다.

<종합 예제3>

☞ 말하는 악어와 아기 어머니의 일화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인도 갠지스 강가에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악어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 악어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부인의 아이를 물어 갔다. 부인은 악어에게 아이를 돌려줄 것을 애원했다. 그러자 악어는 그 부인에게 “만일 내가 아이를 돌려줄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이 알아맞힌다면 아이를 돌려주겠고.” 하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당신은 아이를 돌려줄 뜻이 없소”하고 대답하면서 덧붙이기를, “이제 당신

[악어]은 아이를 돌려주어야 하오. 이유는 이렇소. 내 대답은 맞든지 틀리든지일 것이요. 그대가 아이를 돌려줄 뜻이 있다면 말이니 그 뜻에 따라 역시 아이를 돌려주어야 하오.” 이러한 양도논법에 대해서 악어는 어떻게 역공했을까? 그리고 양 측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부인의 양도논법

전제 1: 만일 나의 대답이 맞다면 약속에 의해서 악어 당신은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나의 대답이 틀리다면 당신이 아이를 돌려줄 뜻이 있다는 말이니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전제 2: 나의 대답은 맞든지 틀릴 것이다.

결론 : 당신은 약속에 의해서 아이를 돌려주든지 뜻에 의해서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즉 어쨌든 아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악어의 양도논법

전제 1: 만일 부인의 대답이 맞다면 내가 아이를 돌려줄 뜻이 없다는 말이니 아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만약 부인의 대답이 틀리다면 약속에 의해서 나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전제 2: 나의 대답은 맞든지 틀릴 것이다.

결론 : 나는 나의 뜻에 따라 아이를 돌려주지 않든지 부인에게 한 약속에 따라 아이를 돌려주지 않든지일 것이다.[즉 어쨌든 나는 아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소]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유틸루스(Euathlus)의 대화

기원전 5세기 경 프로타고라스는 그리스 수사학 교사였다. 그는 여러 과목을 가르쳤지만 변론술이 전문이었다. 유틸루스는 변론사가 되고 싶었지만 수업료가 없어서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프로타고라스는 그를 가르치되 그가 첫 사건에서 이길 때 수업료를 받기로 합의하고 문하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유틸루스는 수업 과정을 이수하고도 개업을 지연하고 있었다. 돈받기를 기다리다 지친 프로타고라스는 부득이 수업료 지급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양도논법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당신은 재판관으로서 양 측의 양도논법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프로타고라스의 양도논법

전제 1: 유틸루스가 이 소송에서 지면 그는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수업료를 내어야 하고  
 이기면 [상호 합의한 계약에 의해서] 수업료를 내어야 한다.

전제 2: 그는 승소하거나 패소할 것이다.

결론 : 그는 수업료를 내어야 한다.

-유틸루스의 양도논법

전제 1: 만약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는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면 [상호 합의한 계약에 의해서]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다.

전제 2: 나는 승소하거나 패소할 것이다.

결론 : 나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와 바리새파의 논쟁: 가이사(Caesar)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바리새파의 양도논법

예수가 유대인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그는 경제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로 로마의 지배와 세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받고 배척될 것이다. 만일 예수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와 지배 체제에 대해 도전하고 저항을 선동하는 죄목으로 고발될 것이다. 예수는 세금을 내라고 하든지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민족에게 배척되어 매장되거나 반체제 선동죄로 고발되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13-17)

-예수의 대응 논리

- ①뿔 취하기
- ②역딜레마
- ③뿔 사이로 피하기

**연역 논증의 명제 논리 형식과 그 오류**

논리형식		오류형식	오류이름	오류내용
가언 삼단논법	전건긍정법	형식적 오류	후건긍정의 오류	전건 긍정 없음
	후건부정법		전건부정의 오류	후건 부정 없음
선언 삼단논법	부정적 긍정식		선언지긍정의 오류	선언지 부정 없음
	긍정적 부정식		선언지불완전의 오류	
양도논법			거짓딜레마의 오류 ( )	가언 명제의 거짓됨 규칙1 위반
			거짓딜레마의 오류 ( )	선언 명제의 거짓됨 규칙2 위반
		거짓 딜레마의 오류 ( )	동일형식의 반대결론 규칙1 위반	

2) 중요한 개념 논리 형식

① 정언적 삼단논법(간접추리법 Categorical Syllogism)

☞ 세 개의 정언 명제와 세 개의 개념(명사)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

<형식>

전제 1: 대개념이 있는 정언 명제

전제 2: 소개념이 있는 정언 명제

결론: 대, 소개념이 있는 정언 명제/매개념이 없는 정언 명제

<보기>

대전제: 모든 **고귀한 것(M)**은 **영속적 가치를 지니는 것(P)**이다.

소전제: 모든 **진실한 사냥(S)**은 **고귀한 것(M)**이다.

결론: 모든 **진실한 사냥(S)**은 **영속적 가치를 지니는 것(P)**이다.

☞ 대전제: 대개념이 있는 명제/소전제: 소개념이 있는 명제/결론: 대개념과 소개념만 있는 명제; 매개념이 없는 명제

☞ 대개념: 결론의 술어 개념(P)/소개념: 결론의 주어 개념(S)/매개념: 대전제와 소전제에 들어 있는 개념; 결론에는 없는 개념(M)

☞ 정언삼단논법의 식: 세 개의 정언 명제(A, E, I, O)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대전제, 소전제, 결론 순으로 명제의 종류를 문자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

☞ 정언삼단논법의 격: 매개념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

(1격) M-P (2격) P-M (3격) M-P (4격) P-M

S-M	S-M	M-S	M-S
S-P	S-P	S-P	S-P

**연역 논증의 개념 논리 형식(타당한 정언적 삼단논법)**

1격	2격	3격	4격
AAA	EAE	(AAI)	(AAI)
(AAI)	(EAO)	IAI	AEE
EAE	AEE	AII	(AEO)
(EAO)	(AEO)	(EAO)	IAI
AII	EIO	OAo	(EAO)
EIO	AOO	EIO	EIO

<적용>

◆ 타당한 정언 삼단논법 1(AAA-1)

모든 여행 동호인은 낭만주의자다.  
모든 회원은 여행 동호인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낭만주의자다.

◆ 타당한 정언 삼단논법 2(AEE-4)

모든 회원은 여행 동호인이다.  
모든 여행 동호인은 파렴치한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파렴치한도 회원이 아니다.

◆ 타당한 정언 삼단논법 3(AII-1)

모든 광신자는 역사를 파멸로 이끄는 자이다.  
어떤 이상주의자는 광신자이다.  
따라서 어떤 이상주의자는 역사를 파멸로 이끄는 자이다.

◆ 부당한 정언 삼단논법 1(AAA-2)

모든 말미잘은 강장동물이다.  
모든 해파리는 강장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해파리는 말미잘이다.

◆ 부당한 정언 삼단논법 2(EAE-4)

모든 바퀴벌레는 개똥벌레가 아니다.  
모든 개똥벌레는 곤충이다.  
따라서 모든 곤충은 바퀴벌레가 아니다.